

F. Kafka의 <소송 Der Prozeß>과 H. Hesse의 <황야의 늑대 Der Steppenwolf> 비교 연구

尹 昌 植

(독어교육과 시간강사)

1. 서 론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는 <불안의 개념 Begriff Angst>이라는 글에서 '불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삶은, 불안 속에 있는 개인이 죄를 거의 탐욕적으로 응시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는 현상들을 나타낸다.

Das Leben bietet Erscheinungen, bei denen das Individuum in Angst nahezu begehrllich auf die Schuld starrt und gleichvoll und sie fürchtet.¹⁾

키에르케고르는 이어서 존재의 밑바닥으로부터 전해오는 강렬한 전율을 지닌 사람을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신성한 고발자 göttlicher Anklager'²⁾라고 지칭하고 그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을 무시하고, 평범한 길을 가지 않고 역으로 불안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키에르케고르적인 인식은 현대사회 일반의 정신현상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불안 개념과 더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인간의 실존문제 혹은 소외문제이다. 현대에 이르러 이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적, 사회학적 내지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그런데, '喪神의 시대'로 불리는 20세기에 있어 독일의 현대 산문작가의 거장들인 프란츠 카프카(F. Kafka), 토마스 만(T. Mann),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창작태도는, 그 작가들이 거의 동시대인들 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모티브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현실 혹은 사회현상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접근 방법 및 그것의 극복 과정등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근자에 이르러 이 작가들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교 연구하는 시도는

1) Kierkegaard: Begriff Angst, zitiert nach: K. Wagenbach: Kafka. Hamburg: Rowohlt 1982, S. 77.

2) Ebda.

없었다. 따라서 本稿는 이들 중 카프카와 헤세를 비교연구해 봄으로써 이들의 문학적 본질에 다가가는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카프카의 〈소송 Prozeß〉과 헤세의 〈황야의 늑대 Der Steppenwolf〉의 두 주인공 요제프 카(Josef K.)와 하리 할러(Harry Haller)의 현실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것의 극복방법 내지 극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論究하고자 한다.

Ⅱ. 현실 인식태도

(1) 소외자와 獨行者

‘소외 *Entfremdung*’는 근대에서 현대사회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었던 사회 심리적인 현상이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소외는 ‘양도하는 것이며 to alienate’, 이는 곧 ‘준다’는 것 to give’ 이거나 ‘판다’는 것 to sell’ 을 의미한다.”³⁾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따라서 자발적인 양도는 계약 당사자에게 ‘善’일 경우에만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루소가 지적한 ‘계약 당사자’란 ‘私人 *Privatmensch*’으로서의 한 인간과 ‘조직’⁴⁾과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임을 의미한다. 물론 계약 당사들에게 선으로 작용할 경우의 양도, 즉 소외는 불안이나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 건전한 의미의 소외이지만, 어느 일방에게는 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야기되는 소외의 일반성은 바로 ‘일방적 계약’으로 인하여 개체로서의 인간의 가치가 거대한 조직이나 당국(*Behörde*)의 힘에 의해서 훼손된다는 점에 있다.

〈소송〉의 주인공 요제프 카는 자신의 30세 생일날 아침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었는데도 *ohne daß er etwas Böses getan hätte*”⁵⁾ 체포된다. 요제프 카는 지극히 현실적인 직업인 은행의 업무주임으로서 상업적인 조직의 부속품이었다. 그런데 카프카는 이러한 인간을 구금함으로써 일상으로부터 단절시키려 한다. 그의 ‘존재의 밑바닥으로부터 전해오는 강렬한 전율’은 그로 하여금 기계적인 조직의 일상성과 비인간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탈출하도록 한다. 〈소송 Prozeß〉이라는 작품 이름이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인공 요제프 카는 사회 조직과 당국과의 끝없는 ‘소송’이라는 ‘과정 Prozeß’ 속에 있게 된다. 따라서 요제프 카의 현실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며(negative) 투쟁적이다. 그는 ‘처벌의 환상 *Strafphantasie*’⁶⁾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간파할 수 없는 힘 *völlig undurchdringliche Kraft*’⁷⁾과 상충하기도 한다. 요제프 카는 그와 같은 알 수 없는 힘과 대적

3)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zitiert nach: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2, S. 29.

4) 여기서는 ‘국가 *Staat*’를 의미한다.

5) F. Kafka: *Der Prozeß*. Hrsg. v. Max Brod. Frankfurt a. M.: Fischer 1979, S. 7.

6) W. H. Sockel: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Frankfurt a. M.: Fischer 1976, S. 155.

하면 할수록 더욱 패배하며 곧 현실로부터 소외되고 만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제프 카의 소외는 일방적 계약에 의한 '수동적 소외'이다.

이에 반해서 <황야의 늑대>의 주인공 하리 할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태도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독행자 Einzelgänger'로서의 태도를 견지한다. 독행자의 모습은, 당국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으로 소외자가 된 요제프 카의 경우와는 달리, 하리 할리 스스로(freiwillig) 택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하리 할리는 요제프 카와는 달리 구체적인 직업이 없고 일정한 가정생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직과의 상충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 하리 할리는 완전히 자기 의지로 '시민 세계의 밖 außerhalb der bürgerlichen Welt'⁸⁾에 서 있다. 하리 할리는 시민 세계에는 맞지 않은 '용적이 큰 인간'⁹⁾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현실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超克을 추구한다. '소외된 자 der Entfremdete'로서의 요제프 카는 '처벌의 환상'을 감지해야 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독행자로서의 하리 할리의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런 양태를 보이지만 항상 '상승'과 '고양'의 가능성을 보인다. 따라서 요제프 카라는 인간상은, "그의 정상적인 직업생활 속에 파고 들어 그것을 파괴하는 기이한 것, 간파할 수 없는 것, 전율스러운 정도로 실제적인 것 etwas Fremdes, Unbegreifliches, grauenhaft Reales, das mitten in sein genormtes Berufsleben eindringt und es zerstört"¹⁰⁾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에, 하리 할리의 인간상은 "법칙의 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서 그 뒷면에 쓰여 있는 반대적인 내용을 보여주려고 한다. [Er] zerbricht die Gesetztafeln nicht, er dreht sie nur um und zeigt, daß auf der Rückseite das Gegenteil geschrieben steht."¹¹⁾

카프카와 헤세의 문학적 태도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카프카는 <기도하는 이와>의 대화 Gespräch mit Beter)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 나의 생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즉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을 오직 근거가 약한 표상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그 사물들은 한 번 살았을 뿐 이제는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s hat niemals eine Zeit gegeben, in der ich durch mich selbst von meinem Leben überzeugt war. Ich erfasse nämlich die Dinge um mich nur in so hinfälligen Vorstellungen, daß ich immer glaube, die

7) W. Emrich: Die Bilderwelt Franz Kafkas. In: W. Emrich: Protest und Verheißung. Studien zur klassischen und modernen Dichtung. Frankfurt a. M.: Athenäum 1963. 259.

8) H. Hesse: Der Steppenwolf. In: Gesammelte Werke(이하, GW.로 표기함).

9) GW. Bd. 7, S. 341.

10) W. Emrich: Die Bilderwelt Franz Kafkas: a. a. O., S. 256.

11) H. Hesse: Gedanken zu Dostojewskis <Idiot>. In: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Hrsg. v. Volker Michels. Frankfurt a. M.: 1979, S. 222.

Dinge hätten einmal gelebt, jetzt aber seien sie versinkend.¹²⁾

여기서 ‘근거가 약한 表象 *hinfallige Vorstellungen*’이란 어느 한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성찰하지 않고 ‘우연히 *zufällig*’ 表象化한 것을 의미한다. 카프카는 ‘급하게 붙여진 이름들 *Namen, die in einer Eile geschüttet werden*’¹³⁾보다는 ‘사물의 진실한 이름 *wahrhaftige Namen der Dinge*’¹⁴⁾을 찾고자 고뇌했다. 이런 맥락에서 카프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적인 사물 일반은 모두 ‘우연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저상(沮喪)시키는 그러한 사물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현실적인 사물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지만 패배로 이어지고 결국은 일상성을 일탈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요제프 카도 현실을 ‘기이하고 알 수 없고 섬뜩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카프카는 “세계를 순수함과 불변의 것으로 끌어올리려는 투쟁 *Der Kampf, die Welt ins Reine, Wahre, Unänderliche zu heben*”¹⁵⁾을 번번히 실패로 끝내고 만다.

‘변화와 환상의 찬미 *Verehrer des Wechsels, der Phantasie*’¹⁶⁾인 헤세는 창작의 모티브를 “지속적인 변화와 긴장 속에 있는 정신과 생명 *Geist und Leben, in dauerndem Wechsel, in steter Spannung*”¹⁷⁾에서 찾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헤세의 주인공들은 마치 물 흐르듯이 ‘변화’의 줄기를 따라 自己實現(*Selbstverwirklichung*)의 길을 ‘홀로 *einzel*’ 걸어가는 獨行者(*Einzelgänger*)이다. 물론, 하리 할리는 “무관계와 고독과 점점 희박해져가는 공기 *in einer Beziehungslosigkeit und Vereinsamung[...] in der immer dünner werdenden Luft*”¹⁸⁾ 속에서 질식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현실이라는 법칙과 질서를 일거에 파기하는 ‘혁명적인 변화의 예감 *die Vorahnung der großen Umwälzung*’¹⁹⁾을 갖기도 하지만, 작품의 흐름은 ‘지양 *Aufhebung*’과 ‘초극 *Überwindung*’이라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현실 속에서 요제프 카가 고뇌하며 느끼는 고독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조직의 법칙과 대치하지만 진정한 실존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뇌는 고통스러울 수 밖에

12) F. Kafka: Gespräch mit dem Beter. In: F. Kafka: Sämtliche Erzählungen. Hrsg. v. Paul Raabe, Frankfurt a. M.: Fischer 1982, S. 189.

13) Ebd. S. 188.

14) Ebd.

15) K. Wagenbach: Kafka. Hamburg: Rowohlt 1980, S. 114.

16) H. Hesse: Bauernhaus. GW. Bd. 6, S. 134.

17) B. Zeller: Hermann Hesse. Hamburg: Rowohlt 1980, S. 136.

18) H. J. Lüthi: <Der Steppenwolf>—Ein Weg durchs Chaos. In: E. Neis (Hrsg.): Erläuterungen zu Hermann Hesses *Demian, Siddhartha, Der Steppenwolf*. Hollfeld: Bange 1979, S. 85.

19) K. Wagenbach: Kafka: a. a. O., S. 144.

었다. 이에 반해서 하리 할리의 고독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독을 즐기는 적극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요제프 카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비생산적인 반항 unproduktiver Widerstand'에 불과한 반면, 하리 할리의 그것은 '생산적인 체념 produktive Resignation'에 바탕을 두고 있다.²⁰⁾

(2) 현실 인식의 樣態

카프카는 현실을 '불가해한 것' 혹은 '불가촉적인 것'으로 간주한 반면, 헤세는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소시민들의 일상적인 현실을 '낮은 현실 die niedere Wirklichkeit'²¹⁾로 간주하고 그러한 '낮은 현실'은 '생의 함몰 Abfall des Lebens'²²⁾과 '낙인 찍힌 현실의 공동화된 황량함 die klanglosen Öden des abgestempelten Wirklichkeit'²³⁾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카프카는 '모든 거짓의 집합 속에 들어 있는 진실 im Chor aller Lüge liegende Wahrheit'²⁴⁾을 밝혀내고 그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대의 조류로부터 탈출하여 현실로부터 소외되면, 현실 속에 있을 때와는 달리 不可解한 세계가 역설적으로 可視적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즉, 카프카는 "소외가 인식에 도움을 준다"²⁵⁾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카프카는 인간들이 단순히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직 속에 피동적으로 안주하게 되면 그 조직이 안고 있는 모순이나 적폐를 적출해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카프카는 현실의 외부에 '아르키메데스의 점 archimedischer Punkt'을 설정하고 그 점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현실의 문제점과 허위를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카프카의 문학적 시도는 그의 일련의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데,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어 잠자(Gregor Samsa)가 하루 아침에 독충으로 변신하여 현실로부터 격리되는 장면과, 〈소송〉의 주인공 요제프 카가 '어느날 아침에 eines Morgens' 갑자기 체포당하는 몸이 되는 장면이 그렇다. 은행 업무주임인 요제프 카가 일상적인 업무 속에 안주한다면 현실의 모순이 무엇

20) R. Pannwitz: <Der Steppenwolf>. Der Sinn von Hermann Hesses Roman. In: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Hrsg. v. Volker Michels. Frankfurt a.M.: Suhrkamp 1979, S. 329.

21) G. Mayer: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 mit den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Bonn: Röhrscheid 1956, S. 71.

22) H. Hesse: Kurzgefaßter Lebenslauf. In: Materialien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a. a. O., S. 21.

23) G. Mayer: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 mit den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S. 71.

24) W. Emrich: Protest und Verheißung, S. 145.

25) Ebda.

이며 인간의 본질을 억제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간파할 수 없는 반면에, 어느날 갑자기 소송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한편, 하리 할러는 50세라는 나이가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실의 모순을 간파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현실 höhere Wirklichkeit'로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헤세는 '용기를 가진 자 Leute mit Mut'만이 현실적인 유일한 삶을 극복하고 '불멸의 인간들 die Unsterblichen'이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⁶⁾ 하리 할러는 그의 '혼성적인 데몬 ein hermaphrodischer Dämon'인 헤르미네(Hermine)의 도움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영원한 세계로 승화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된다. 카프카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설정한 반면, 헤세는 역으로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사물의 내부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프카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遠心的이라고 한다면, 헤세의 그것은 求心的이다. 하리 할러는 현실적 의미의 제조건, 즉 가정이나 직업과는 전혀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요소를 긍정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것은 바로 사회의 모순이나 현대인의 고뇌의 근원을 철저히 내면화시켜 현실 속에서 야기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일 까지도 체험하고 느끼고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반해서 요제프 카는 직업생활에 대한 강박관념과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현실을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반대감정병존 Ambivalenz'을 보인다. 물리학자 아르케메데스가 자신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지구 밖의 한 점과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지구를 들어 올리지 못한 것처럼 카프카도 자신의 외부에 어느 한 점을 설정하기 했지만,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회모순의 근본적인 치유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소송〉의 제 9장 〈돔에서 Im Dom〉에서 요제프 카는 자신이 연루된 소송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Diese Möglichkeit müsste bestehen"²⁷⁾라고 토로하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체포했던 이에게 채석장에서 '개처럼 wie ein Hund'²⁸⁾ 죽음을 당하는 장면으로 종국을 맞이한 것은 카프카가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하지 못한 카프카 문학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다.²⁹⁾

카프카는 진실에 도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한 〈일기메모 Tagebuchnotiz〉에

26) GW. Bd. 7. 237/ 346f.

27) K. Kafka: Der Prozeß. S. 181.

28) Edba. S. 194.

29) Vgl. W. Emrich: Franz Kafka.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Bd. II. Hrsg. v. O. Mann/W. Rothe. Bern: Franck 1967, S. 193.

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없다. [...] 다만 인간이 아닌 것, 즉 거짓은 전달할 수 있다. 거짓의 집합 속에 비로소 어떤 진실이 들어 있을 수 있다.

Das, Was man ist, kann man nicht ausdrücken [...]; mitteilen kann man nur das, was man nicht ist, also die Lüge. Erst im Chor der Lüge mag eine gewisse Wahrheit liegen.³⁰⁾

요제프 카는 체포되어 소송사건에 연루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외됨으로써 인식하려하지만’ 작품이 끝날 때까지,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말한 ‘권위’(그것이 현시적이든 익명적이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만다. 요제프 카는 특히 익명의 권위기관, 즉 심급을 알 수 없는 법원당국(Gerichtbehörde)과의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배한다. 이에 반해서 하리 할리는 사회조직에 대한 ‘自動人形的 同調 automation conformity’를 거부하고 ‘파괴’라고 하는 이차적인 창조를 택한다.³¹⁾

(3) 가족과 직업생활

문예학 일반에서 하나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애와 작품의 통일 Einheit von Leben und Werk: Biographismus’이라는 개념은 차치하고라도 어느 한 작가의 생애가 작품에 반영된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두 작가, 카프카와 헤세의 경우는 Biographismus적 성향이 어느 작가보다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는, 두 작가의 대표작인 <소송>과 <황야의 늑대>의 각각의 주인공들의 이름인 요제프 카(Josef K.)와 하리 할리(Harry Haller)의, 이니시알이 ‘Kafka’와 ‘Hermann Hesse’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사실에 상도해 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카프카의 또다른 소설 <성 Schloß>의 주인공 이름도 Kafka의 첫자를 딴 ‘K.’이다. 페터 드 멘델스존(Peter de Mendelssohn)은 <황야의 늑대>를 가리켜 헤세의 ‘유일한 창조적인 자서전 einzige schöpferische Autographie’³²⁾이라고 지적했다.

30) Edba., S. 191.

31)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에서 “인간은 소외되지 않은 상태가 그에게 부과하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고독을 그 자신의 眞正性(authenticity)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그 자신을 권위에 복종케 하거나, 파괴라는 이차적 창조성, 또는 무비관적인 自動人形的 同調를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

정문길: 소외론 연구. S. 184.

32) P. de Mendelssohn: Repräsentanz des Außenseiters. In: Über Hermann Hesse. 2. Bd. Hrsg. v. Volker Michels. Frankfurt a. M.: Suhrkamp 1977, S. 141.

바겐바하(K. Wagenbach)는 카프카의 생애에 대해서 “카프카의 삶에는 20세기의 작가들의 허다한 전기를 규정하는 끊임없는 변화가 결핍되어 있다 *Dem Leben Kafkas fehlt der fortwährende Wechsel, der so viele Biographien von Autoren des zwanzigsten Jahrhunderts bestimmt*”³³⁾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카프카는 철저한 리얼리스트였던 셈이다. 카프카는 작가로서의 직업 외에 매우 현실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데 비해서 헤세는 마울브론 신학교를 자퇴한 후 잠시 시계공장 견습공으로 일한 것과 바젤(Basel)에서 점원생활을 한 것 이외는 상업적 의미의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다. 한편,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카프카는 상업적 기질이 강한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자신의 자아표출에 장애를 가진 반면에, 헤세는 종교적이고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권위에 피동적으로 위압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두 작가의 성장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송>과 <황야의 늑대>에도 직업생활과 가족의 모티브가 잘 나타나 있다. <소송>은 아주 평범한 가정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Vater-Complex’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심판 *Das Urteil*>이나 <변신>과 마찬가지로 <소송>에도 현실과 밀착된 가정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요제프 카는 가정과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익명의 힘’에 억눌려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한다. 요제프 카는 “내가 혼자였더라면 그 소송을 쉽사리 무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소송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Wäre er allein gewesen, hätte er den Prozeß leicht ignorieren können, dann wäre der Prozeß nicht entstanden*”³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요제프 카의 아버지 칼(Karl)이 등장하여 요제프 카에게 가족과 친척관계를 계속 상기하도록 종용하고 요제프 카가 무시하고 싶어하는 소송도 자기가 해결한다며 요제프 카를 소송에 연루시킨다. 여기서 칼 아버지는 카프카의 아버지의 형상과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카프카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요제프 카의 “아버지는 항상 급하게 처신했다. 왜냐하면, 그는 불행한 생각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Der Onkel befand sich immer in Eile, denn er war von dem unglücklichen Gedanken verfolgt.*”³⁵⁾ 요제프 카는 이러한 아버지를 ‘시골에서 온 유령 *Das Gespenst vom Lande*’³⁶⁾이라고 부른다. 칼 아버지는 요제프 카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요제프야, 제발 너 자신과 너의 친척들과 우리의 훌륭한 가문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이제까지 우리 가문의 영예였으며, 앞으로도 가문의 수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너의 행동이.

Josef, lieber Josef, denke an dich, an deine Verwandten, an unseren guten Namen! Du warst bisher

33) K. Wagenbach: *Kafka: a. a. O.*, S. 9.

34) F. Kafka: *Der Prozeß*. S. 129

35) Ebd. S. 80.

36) Ebd.

· unsere Ehre, du darfst nicht unsere Schande werden. Deine Haltung.³⁷⁾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어 잠자가 그의 곤충으로의 변신이 가족들에게 수치가 되었듯이 요제프 카의 소송 사건도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큰 수치감을 야기시킨다. 자신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요제프 카의 말에 아저씨는 소리를 지르며 꾸짖는다.

너는 도대체 소송에 패배하고 싶으냐? 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 그것은, 네 신세만 망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전친척이 휘말려 들어가거나 적어도 굴욕을 당하고 마는 거야.

Willst du denn den Prozeß verlieren? Weißt du, was das bedeutet? Das bedeutet, daß du einfach gestrichen wirst. Und daß die ganze Verwandten mitgerissen oder wenigstens bis auf den Boden gedemütigt wird.³⁸⁾

요제프의 아저씨는 소송에 패배하면 큰 굴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요제프에게 ‘차별의 환상’을 심어주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요제프 카는 그러한 아저씨에게, <심판>의 주인공 게오르크 벤데만 (Georg Bendemann)이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하듯이 혐오감 (Abneigungsgefühl)을 느낀다. 그러나 요제프 카는 아저씨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저씨가 하시는 일은 저에게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Mir ist alles recht, was du unternimmst”³⁹⁾라고 말하고 만다. 여기서도 반대감정병존 현상이 드러난다.

카프카의 ‘Vater-Complex’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바보스러운 lächerlich’ 면에 대한 혐오감을 함께 지니고 있다.⁴⁰⁾ <소송>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저씨의 형상으로 변용되어 있는데, 아저씨는 요제프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요제프의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서 요제프의 치부가 드러나게 한다. 요제프는 그러한 아저씨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사람 Enthüller des Versteckten’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아저씨는 요제프에게 ‘귀찮은 것 Belästigung’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

<소송>의 미완성작 중의 하나인 <어머니에게로의 여행 Fahrt zur Mutter>에는 요제프의 어머니의 형상이 잘 나타나 있다. 제 1장과 제 4장에 나오는 하숙집 여주인인 그루바하 (Grubach)부인이 어머니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요제프 카는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그루바하 부인과 상의하면 마음이 좀 놓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부인도 소송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머니-장 Mutter-Kapitel>을 보면, 요제프 카는 3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

37) Ebda. S. 82.

38) Ebda. S. 84f.

39) Ebda. S. 86.

40) W. H. Sockel: Franz Kafka: a. a. O., S. 195..

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매년 자기 생일날 어머니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번이나 그 약속을 어긴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약속을 어긴 첫번째 생일날 체포당하여 두번째 생일날 처형당한다. 이는 <심판>에서 게오르크가 자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죽은 어머니에게 불충했다는 이유로 익사형이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게되는 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요제프 카에 대한 소송사건이 그가 어머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바로 그날 발생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점을 암시하고 있다. 즉, 소송은 요제프가 가족에게 소원했던 것에 대한 징벌이며, 은행업무주임 역할 때문에 '그의 출생지, 즉 자신의 존재의 원천으로 *zum Geburtsort, zur Quelle des Daseins*'⁴¹⁾ 돌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직업이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요제프를 격리시킨 것이다. 여기서 은행이라는 조직은 '세속적인 것 *Weltliche*'을 상징하고 이것은 '초월적인 것 *das Transzendete*'과 '존재의 전체성 *Totalität des Seins*'과 대치된다.⁴²⁾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요제프 카가 은행업무에 충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소외는 심화되며 소송 사건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거기에 아저씨가 끼어들어 자신의 친구 홀트(*Huld*) 변호사와 사건 해결사인 화가 티토넬리(*Titonelli*)를 만나는 등 힘을 쓰지만 그럴수록 그 사건은 계속 미궁 속으로 빠지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요제프 카의 소송에 대한 가족들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 6장 <아저씨 레니 *Der Onkel. Leni*>의 말미에 가면 끝난다. 가족을 대표하여 아저씨는 요제프 카를 가족과 연계시키려 하지만 실패하고 소송에 얽힌 '내면의 진실 *innere Wahrheit*'도 밝혀내지 못한다.

다음은 하리 할러에게 있어 가정과 직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리 할러는 현실적 의미의 직업이 없다. <황야의 늑대>는 황야의 늑대라는 별명을 지닌 50세의 한 중년 남자가 도시의 한 하숙집을 찾아 오면서 줄거리가 전개된다. 그러나 하리 할러의 고향이 어디이고 직업이 무엇이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것은 가족이나 직업이 그의 내면적, 외면적 생활을 전혀 규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리 할러는 소시민들의 생활을 '단조롭고 맥빠지고 규범화되고 소독을 해버린 생활 *dies abgetönte, flache, normierte und sterilisierte Leben*'⁴³⁾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하리 할러는 소설의 제 2부에 해당하는 <하리 할러의 수기 *Harry Hallers Aufzeichnung*>에서 소시민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만족과 무고통, 그리고 고통과 욕망이 감히 소리지르지 않고 모든 것이 단지 속삭일 뿐, 견딜만하

41) Ebd. S. 200.

42) Ebd. S. 202.

43) GW. Bd. 7, S. 207.

여 몸을 구부리고 사는 이런 날들은 참 좋은 일일 것이다. [...] 나는 이러한 만족을 결코 견뎌내지 못할 것 같고, 조금만 계속하면 구역질이 나고 혐오스럽고 절망하여 다른 분위기 속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이다.

Es ist eine schöne um die Zufriedenheit, um die Schmerzlosigkeit, um diese erträglichen geduckten Tage, wo Schmerz noch Lust zu schreien wagt, wo alles nur flüstert. [...] Nur steht es mit mir leider so, daß ich gerade diese Zufriedenheit gar nicht gut vertrage, daß sie mir nach kurzer Dauer unausstehlich ekelhaft wird und ich mich verzeiflungsvoll in andre Temperatur flüchten muß.⁴⁴⁾

이와 같이 하리 할러는 ‘이른바 멋진 날들의 미지근한 참을성’ 보다는 ‘악마같은 고통이 자기 자신 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싶어한다.⁴⁵⁾ 하프너(G. Hafner)는 이러한 하리 할러를 가리켜 현대문학의 ‘敘事的 파우스트 epischer Faust’⁴⁶⁾라 칭했다. 하리 할러는 ‘시민적 이름 ein bürgerlicher Name’을 지니고⁴⁷⁾ 평범한 가정에서 하숙을 하면서도 소시민의 생활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특이한 인간이다. 헤세는 소시민의 삶은 냉철한 이성과 절제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영위되는, 낮은 현실의 삶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삶 보다는 이성을 능가하는 힘과 역동적인 생명력 그리고 신성(Gottheit)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른바 ‘높은 현실’의 삶을 하리 할러의 인간상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⁴⁸⁾ 헤세는 낮은 현실을 극복하고 높은 현실로 상승하고 싶은 의지에서 하리 할러라는 변증법적인 인간유형을 설정하여 ‘위험스럽고 고뇌에 찬 실험 ein gefährlich schmerzliches Experiment’⁴⁹⁾을 시도했다.

요제프 카와 하리 할러는 다 같이 ‘현실’ 때문에 고뇌하며 불안해하고 고독을 느끼지만, 요제프 카의 경우는 현실(가족과 직업활동을 포함하여)에 얽매어(verstrickt)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受動的 산물’인 반면, 하리 할러의 경우는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로 현실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能動的 산물’이다.

44) GW. Bd. 7, S. 206.

45) GW. Bd. 7, S. 207

46) G.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Nürnberg: Hans Carl 1954, S. 67.

47) Ebda.

48) Vgl. P. Böckmann: Hermann Hesse.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Bd. II. Hrsg. v. O. Mann/W. Rothe, Bern: Francke 1967, S. 118.

49) T. Leary: Meisterföher zum psychedelischem Erlebnis. In: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a. a. O., S. 344.

(1) 부정적인 변형(Deformation)

본래 'Deformation'이라는 용어는 '보기 흉하게 만든다/기형으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진 'deformieren'이라는 동사를 명사화한 것이다. 이 용어가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Deformieren'은 어떤 사물을 개선하는 의미의 변형이 아니라, '改惡'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인다. 따라서 카프카 문학에 적용되는 'Deformation'은 이미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순차적이거나 변증적인 길을 선택하기 보다는 카프카의 주인공들은 한순간에 '갑자기' 변형됨으로써, 즉 '무조건적인 시작 *absoluter Anfang*'⁵⁰⁾을 통해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시작'의 기법은 <소송>을 비롯하여 <변신>, <시골의사 *Ein Landarzt*> 및 <성>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그 예를 들어 보면, <소송>의 첫 문장은 "누군가가 요제프 카를 중상모략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아침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 *Jemand mußte Josef K. verleumdet haben, denn ohne daß er etwas Böses getan hätte, wurde er eines Morgens verhaftet*"⁵¹⁾로 시작되고, <변신>은 "어느날 아침 그레고어 잠자가 불안한 꿈으로부터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 커다란 곤충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Als Gregor Samsa eines Morgens aus unruhigen Traumen erwachte, fand er sich in seinem Bett zu einem ungeheueren Ungeziefer verwandelte*"⁵²⁾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시골의사>의 첫 단락은 "나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Ich war in großer Verlegenheit*"로 시작된다. 이 세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카프카의 소설은 상황전제 없이 '급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나 전제 상황을 배제하고 갑작스러운 변형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현실을 벗어나려는 카프카의 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을 여전히 '변형된 형태' 속에만 남아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만드는 한계를 노정시킨다. <소송>과 <변신>에서의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그것의 내면적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수치 *Scham*'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오제프 카는 '갑자기 체포당함으로써' 일상에서 일단 벗어나지만, 그것은 현실적 의미의 기

50) D. Kursche: *Kafka und Kafka-deutung*. München 1974, S. 122.

51) F. Kafka: *Der Prozeß*. S.7.

52) F. Kafka: *Die Verwandlung*. In: *Sämtliche Erzählungen*: a. a. O., S. 56.

소가 아니라 ‘동화같은 착상 märchenhafte Erfindung’⁵³⁾에 의한 가상의 피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업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역설적인 장치가 열려 있다. 따라서 요제프 카의 변신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요제프 카의 변신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카프카의 ‘Deformation’은 자가당착적인 矛盾技法이라 할 수 있다.

(2) 긍정의 再統合(Reintegration)

에드몽 보쥬(Edmond Beaujon)은 헤세의 문학(Poesie)과 신화(Mythos)의 상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헤세에게 있어 문학과 신화는 [...] 해체의 상태에서부터 재통합으로 이끄는 요소들이다.

Für Hesse sind Poesie und Mythos Faktoren, die aus einem Zustand des [...] Zerstückelung zur Reintegration führen.⁵⁴⁾

여기서 ‘해체의 상태’는 자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와 순진무구를 일탈한 상태를 말하는 데, 바로 법률, 도덕, 규범이 지배하는 현실상황을 가리킨다. 헤세 문학의 근본 태도는 그러한 해체의 상태를 극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Rückkehr zum Urstand), 즉 ‘재통합 Reintegration’을 함축하는 것이다. 여기서 돌아가는 행위와 재통합의 추구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단선적이고 퇴영적인 회귀가 아니며, 매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 헤세는 해체의 상태를 대변하는 소시민적 현실사회는 ‘높은 현실’로 상승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특히 <황야의 늑대>에서는 ‘높은 현실’의 모습이 ‘불멸의 인간들의 세계 die Welt der Unsterblichen’로 설정되어 있고, 재통합을 위한 현실극복의 한 방법으로서 ‘마술극장 magisches Theater’이 설정되어 있는데, 하리 할리는 마술극장에서 시공을 초월한 갖가지 유희를 함으로써 ‘현실의 마술적 변용 magische Transfigurierung der Wirklichkeit’⁵⁵⁾을 시도한다. 프리드만(R. Freedman)은 ‘마술극장’을 “실제와 환상이 하나의 가공의 성좌 안에서 서로를 투영하고 있다 Realty and illusion mirror one another in a single poetic constellation”⁵⁶⁾고 지적했다. 하리 할리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투시

53) Max Brod: Franz Kafka. Eine Biographie. Frankfurt a. M.: Fischer 1954, S. 50.

54) E. Beaujon: Die Aktualität Hermann Hesses. Die Individuation. In: Über Hermann Hesse. 2. Bd. S. 483.

55) G. Mayer: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 mit den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a. a. O., S. 73.

할 수 있는 ‘마술 극장’에서 고통스러운 자기 해체라는 通過祭儀를 거쳐 ‘불멸의 인간들 die Unsterblichen’이 영원이 사는 신성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감을 하게 된다. 헤세는 〈황야의 늑대〉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불멸의 인간들 중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모짜르트가 하리 할러를 기다리고 있었다 Mozart wartete auf mich[Harry Haller]”⁵⁷⁾고 표현함으로써 하리 할러가 유한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불멸의 인간들의 세계로 재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결국 카프카의 변형(Deformation)은 아무런 효과나 처방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에, 헤세의 마술적 변용은 재통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행위가 된다.

IV. 결 론

프란츠 카프카가 ‘모든 거짓의 집합 속에 들어 있는 진실 Wahrheit im Chor aller Lüge’을 밝히려려고 한다면, 헤세는 ‘모든 사물 뒤에 있는 신 Gott hinter jedem Ding’을⁵⁸⁾ 보여주려고 한다.

〈소송〉의 주인공 요제프 카는 갑자기 소송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일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변형’되지만 결국 ‘완전한 진실에 도달하는 일 die ganze Wahrheit zu erreichen’⁵⁹⁾에 실패한다. 막스 브로트(Max Brod)는 이러한 카프카의 문학적 특성을 “목표만 있고 길은 없다 Es gibt nur Ziel, keinen Weg”⁶⁰⁾고 지적했다. 요제프 카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고뇌하지만 자신이 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모호성’과 ‘불가측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황야의 늑대〉의 하리 할러는 ‘마술 Magie’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인간적 한계가 사라지고 ‘신의 미소 Lachen Gottes’⁶¹⁾가 충만한 ‘통일성의 세계’로 재통합할 수 있는 경계에서 있게 된다.

56) R. Freedman: The Lyrical Novel. New Jearsy: Princeton Univ. Press 1971, S. 81.

57) GW. Bd. 7, S. 413.

58) GW. Bd. 5, S. 256.

59) W. Emrich: Protest und Verheißung: a. a. O., S. 145.

60) Max Brod: Über Franz Kafka: a. a. O., S. 66.

61) GW. Bd. 5, S. 485.

V. 참고문헌

I. Texte

- Kafka, Franz (1979). Der Proze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Kafka, Franz (1982). Sämtliche Erzählung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Hesse, Hermann (1976). Der Steppenwolf. In: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Bd. 7.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II. Sekundärliteratur

- Ball, Hugo (1978).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Brod, Max (1954). Franz Kafka eine Biographie. Frankfurt a/M.
Emrich, Wilhelm (1963). Protest und Verheißung, Studien zur klassischen und modernen Dichtung.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Bonn.
Freedman, R. (1954). The Lyrical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arsy.
Dietrich Krusche (1974). Kafka und Kafka-deutung. München.
Mann, O. und Rothe, W. (Hrsg.) (1967). Deutsche Litertur im 20. Jahrhundert Band II. A. Francke AG Verlag Bern.
Mayer, Gerhart (1956).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s mit den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Ludwig Rohrscheid Verlag Bonn.
Michels, Volker (Hrsg.) (1979).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ichels, Volker (Hrsg.) (1977). Über Hermann Hesse. Zweiter Band.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Neis, Edgar (1979). Erläuterungen zu Hermann Hesses "Demian", "Siddhartha", "Der Steppenwolf". C. Bange Verlag Holfeld/Obfr.
Sokel, W.H. (1976). Franz Kafka Tragik und Ironie. Fischer Taschenbuch Verlag Frankfurt a/M.
Wagenbach, Klaus (1982). Kafka. Rowohlt Taschenbuch Verlag Reinbek bei Hamburg.
Zeller, Bernhard (1980). Hermann Hesse. Rowohlt Taschenbuch Verlag Reinbek bei Hamburg.

Abstract

Vergleichende Studien über Franz Kafkas "Der Prozeß" und Hermann Hesses "Der Steppenwolf"

Tschang-Shik, Yun

(Lektor, Department of German Education)

In dieser Arbeit habe ich versucht, wie die Helden Josef K. und Harry Haller der zwei Romane jeweils die Wirklichkeit um sich erkennt und überwindet.

Es liegt darin die Verschiedenheit der Wirklichkeitserkenntnis der zwei Helden: obwohl Josef K. Passiv gegen seine Wille von undurch-dringlichen und unüberschaubaren Kräften entfremdet wird, ist er in der Wirklichkeit verstrickt; dagegen steht Harry Haller freiwillig außer der bürgerlichen Welt und Wirklichkeit. Deshalb könnte man Josef K. den Entfremdeten und Harry Haller den Außenseiter bzw. Einzelgänger nennen. Josef K. versucht vergebens, aus dem Prozeß, trotzdem er sein Berufsleben weiter vollziehen kann, sich zu entziehen. Harry Haller will das Gegenteil, das hinter den Gesetztafeln geschrieben wird, die im Sinne der Wirklichkeit nomiert werden, zeigen oder feststellen. Harry Haller hat "zu viel Dimension", also daß an die Dimension der Wirklichkeit passen könnte.

Kafka hat durch Deformation der Wirklichkeit versucht, sie zu überwinden. Es ist eine Deformation, daß Josef K. eines Morgens, ohne etwas Böses getan zu haben, verhaftet wurde. Dises Deformation hat doch nicht größere Bedeutung als solche, denn obgleich er von der Wirklichkeit verfremdet ist, klammert er sich an sie. Sein Onkel, Vatergestalt, läßt Josef K. an seine Familie erinnern und bemüht sich, den Prozeß zu lösen. Die spannende Verhältnis zwischen Josef K.s Freiheitsstreben und Familienerinnerung und Berufsleben belästigt Josef K. Harry Haller kann jedoch ohne gewissen Beruf oder Familie leben. Darum Beruf und Familie reguliert kaum sein inneres Denken und seine äußere Handlung.

Der Prozeß, der Josef K. gefallen wird, wird nach und nach festgesetzt sein, endlich wird er "wie ein Hund" getötet. Die letzte Intention Kafkas ist Freiheit. Josef K. uns durch seine Deformation nur 'Ambivalenz, Vieldeutigkeit, Rätzelhaftigkeit', die sich in der Wirklichkeit

verbergen, enthüllt.

Für Hesse sind Poesie und Mythos Faktoren, die den Zustand des Bruchs und Zerstückelung zur Reintegration führen. Harry Haller hat die Möglichkeit durch die magische Transfigurierung, d.h. magisches Theater, das Realität und Illusion wechselseitig widerspiegelt, die Wirklichkeit zu überwinden und die Welt der Unsterblichen, die alle Gegensätze annehmen, auflösen und aufheben können, zu erreichen.

Für Franz Kafka zentrifugal und für Hermann Hesse zentripetal ist es, das Glück, die Welt ins Reine, Wahre, Unabänderliche zu heben, zu gewinnen.